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6호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늘어난 수계장병, 전역後 관리 필요

조계종 군종교구 3기 성과 및 4기 과제

4기 新 교구장 혜자 스님

7월 12일 임명장 수여식

'군장병 밀착 포교' 성과

불자장병 전역 관리 과제

"대불련 · 사찰 연계 관리해야"



조계종 제4대 군종특별교구장에 혜자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108산사순례기도회를 통해 군법당을 지원하고 평화의 불 봉안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보를 보인 혜자 스님의 군종교구장 취임을 계기로 군포교의 새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2일 군종특별교구본사 주지로 혜자 스님을 임명했다. 혜자 스님은 임명 직후 "신심과 원력을 세워 남북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前 교구장 정우 스님이 그동안 군장병을 위해 열심히 애써오셨는데, 원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혜자 스님이 밝혔듯 그동안 군종특별교구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밀착형 포교에 앞장서 왔다. 특히 겨울철 군장병을 위한 핫팩 전달이 시작됐다. 2013년 44개 부대에 핫팩 22만개 전달을 시작으로 2014년 1차 48곳 부대 면장갑 33만 켤레, 2차 92개 부대에 핫팩 27만개가 전달됐다. 2015년에는 90개 부대에 27만개의 핫팩이 전해졌다. 2016년에는 서해 도서지역에 '자비의선물' 사업도 추진돼 백령도 및 연평도 장병들에게 4500개의 단주와 핫팩, 마음수행 관련 책을 담은 위문품이 전달되기도 했다.

이밖에 철책선 경계부대 장병들의 심성 순화를 위한 '사랑의 독서카페' 제도도 도입돼 2015년과 2016년 해병대를 비롯한 11개 부대에 독서카페가 탄생했다. 또 군장병 자장면 공양이 진행돼 3기 임기 동안 24개 부대에서 2만5000여 명이 자장면을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눴다. 또 군장병 합장주 걸어주기 운동을 통해 34만 2000개의 합장주도 지원됐다. 군장병들이 편히 찾을 수 있도록 법당 신축 및 보수도 추진돼 신축 21곳, 보수 72곳이 이뤄졌다. 특히 2017년 3월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전통사찰 양식의 법당이 세워지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 끝에 정체 상태였던 수계장병은 2014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만 명 수준이었던 수계장병은 2012년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완공으로 11만4500명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3기 시작 시점인 2013년 10만5000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후 군장병 포교로 2014년 11만6000명, 2015년 11만7000명, 2016년 12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군포교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늘어난 군장병 만큼 이들이 부대와 전역 후 사회에서 신행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군종교구는 이 같은 필요성에 2015년 11월 각 교구본사와 군법당 자매결연을 추진해 현재 군단급 6곳과 사단급 5곳, 교육부대 13곳이 24개 교구본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다. 하지만 사찰과 일선 부대의 연계는 군법당 불사 및 위문품 지원의 수준에 불과하다.

군종교구 실무 관계자는 "개인정보 종교 비공개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입대 전 파라미타, 대불련 등에서 불자 입대자 정보를 교구에 넘겨주고, 교구는 이들 정보를 부대법당과 이후 사찰에 넘겨주는 등 연속적인 포교, 관리가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자 스님은 "현재 휴전선 155마일 33개 법당에 평화의불 봉안 원력을 세웠다. 군종특별교구를 맡아 한반도가 엄중한 시기에 군이 발전하고 군 포교가 진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4대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순호 스님을 은사로 1967년 수계 후 총무원 문화부장, 도선사 주지,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도안사 주지인 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이끌며 10년간 군법당에 초코파이 415만개 전달, 논산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1억원, 백령도 흑룡사 차량 후원 등 군포교에도 앞장섰다. 임기는 7월 25일부터 4년으로이 · 취임식은 7월 27일 오후 6시 30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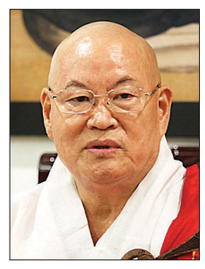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서 망중한을… 수종사에서 차를 마신다는 것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마시는 것이다. 수종사 앞마당에서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내 다원 '삼정헌'에서 시원하게 한강을 조망하고 있노라면 속진 번뇌가 씻어진다. 바람 사이 풍경소리는 정겹기만 하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고원영 작가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7월 13일 59표로 당선… "재정 정상화 앞장"



한국불교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에 편백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편백운 스님은 태고종 중앙선관위(위원장 월봉)가 7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개최한 총무원장 선거 결과 유효표 139표 중 총 59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편백운 스님은 총무원장 수락 연설에서 "태고종 미래를 짊어질 막중한 종단 사적 선택에 감사하는 한편 가슴 끝까지 저려오는 무거움과 의지를 동시에 느낀다"며 "당선자 신분으로 당장 내일부터 종단 재정악화 해결을 위해 대출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편백운 스님은 선거에서 △종단재정 정상화 △기초교육제도 개혁 △권역별 지방 초심원 설치 △사설사찰 보장 △독자적인 대외협력체계 구축 등을 실천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 간담회에서 스님은 먼저 종단 화합을 위해 먼저 대사면을 할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종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화합의 길로 종도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종정 예하와 종회의 동의를 받아 사면문제부터 풀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종단 재정 정상화에 대해 "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역대 집행부는 과도한 부채로 종단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집행부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기업도 운영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다. 이를 어떻게 푸는지가 지도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인선에 탕평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각 시도 교구를 정비하고 행정능력이 완비된 곳부터 중앙종무를 이양해 임기 내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1950년 태어난 편백운 스님은 1963년 예산 수덕사에서 수계했다. 1973년 춘천 석왕사 주지에 취임한 이후 강원지역 포교를 활성화시켰다. 제13대 강원교구 종무원장을 지냈으며, 총무원 사회부장 · 교무부장, 교육부원장을 역임했다. 편백운 스님의 임기는 9월 23일부터 4년간이다. 김주일 기자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① 대통령이 법정 스님을 초대한 이유

연못에 연꽃없는 시대

어느 해 7월 중순쯤이었다. 갑자기 법정 스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비원은 내가 일하는 샘터사에서 승용차로 10여 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게' 단체를 준비하고 계시는 비원 앞 사무실로 달려갔다. 스님께서는 나를 보시더니 대뜸 비원을 함께 가자고 하셨다. 마침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우산을 챙겨들고 나섰다. 비원은 입장객이 모아지면 안내자의 인솔을 받아 정해진 코스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어 있었다. 스님과 나는 오전 11시쯤까지 기다리다가 입장했다. 나는 해설하는 인솔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대신 정해주는 시간까지 나오겠다며 부탁했다. 인솔자는 스님을 보더니 허락했다. 스님과 나는 입장객들과 달리 부용지로 가는 길을 걸었다.

"독립기념관 백련지에 연꽃이 없다고 해요. 기독교 신자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비원 부용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

비가 멎은 듯해서 우산을 접었다. 부용지 가에는 부용정이라는 단아한 정자도 있었다. 아마도 조선시대 왕이나 왕비가 부용지의 연꽃을 감상하기 위해 지은 정자가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역시나 부용지에도 연꽃은 없었다. 여기도 관리자가 연꽃을 뽑아내 버렸음이 분명했다. 스님은 언짢으신지 표정이 어두웠다. 비원을 나와 스님과 나는 말없이 헤어졌다. 그리고 며칠 뒤 스님께서는 모 일간지에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하셨다. 칼럼 뒷부분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비원에는 연꽃의 다른 이름인 부용(芙蓉)에서 따 온 부용정(芙蓉亭)과 부용지(芙蓉池)가 있지만 역시 연꽃은 볼 수 없었다. 불교에 대한 박해가 말할 수 없이 심했던 조선왕조 때 심어서 가꾸어 온 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뽑혀 나간 이 연꽃의 수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꽃에게 물어보라. 꽃이 어떤 종교에 소속된 예속물인가. 불교 경전에서 연꽃을 비유로 드는 것은 어지럽고 흐린 세상에 살면서도 거기 물들지 말라는 뜻에서다. 불교 신자들은 연꽃보다 오히려 백합이나 장미꽃을 더 많이 불전에 공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 연못에서 연꽃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일러스트 · 정윤경

칼럼이 나간 뒤 스님께서 또 서울에 올라오시어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로 나를 불렀다. 대통령이 공무원을 보내 '연못에 다시 연꽃을 심도록 조치했다'고 전하면서 스님을 청와대로 초청하려 했지만 사양했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초대를 거절한 셈이었다. 권력자를 멀리 하고 힘없는 자를 가깝게 하는 이가 수행자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아는 사실이지만 스님은 심지어 조계종 총무원도 피해 다니셨다. 한 번은 부근에 모시고 갈 일이 있었는데 총무원 옆을 지나치시지 않고 멀리 돌아가셨던 것이다.

